

1. 부부의 탄생

서울시는 전국 시도 중 경기도 다음으로 신혼부부가 많으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서울시 혼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독신(비혼)으로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서울시민의 동의 수준은 보통보다 미세하게 높은 수준이며,
결혼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태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시 총 혼인 건수

35,752건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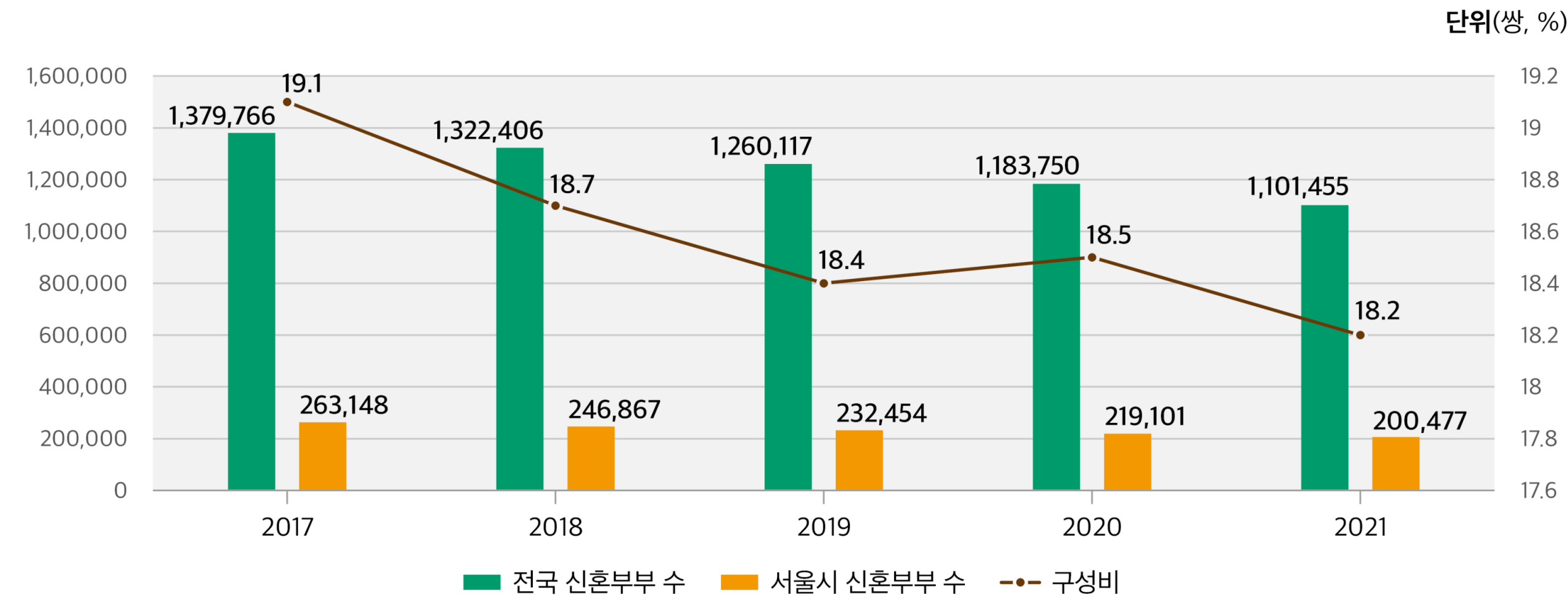
서울시 신혼부부 수

200,477쌍

출처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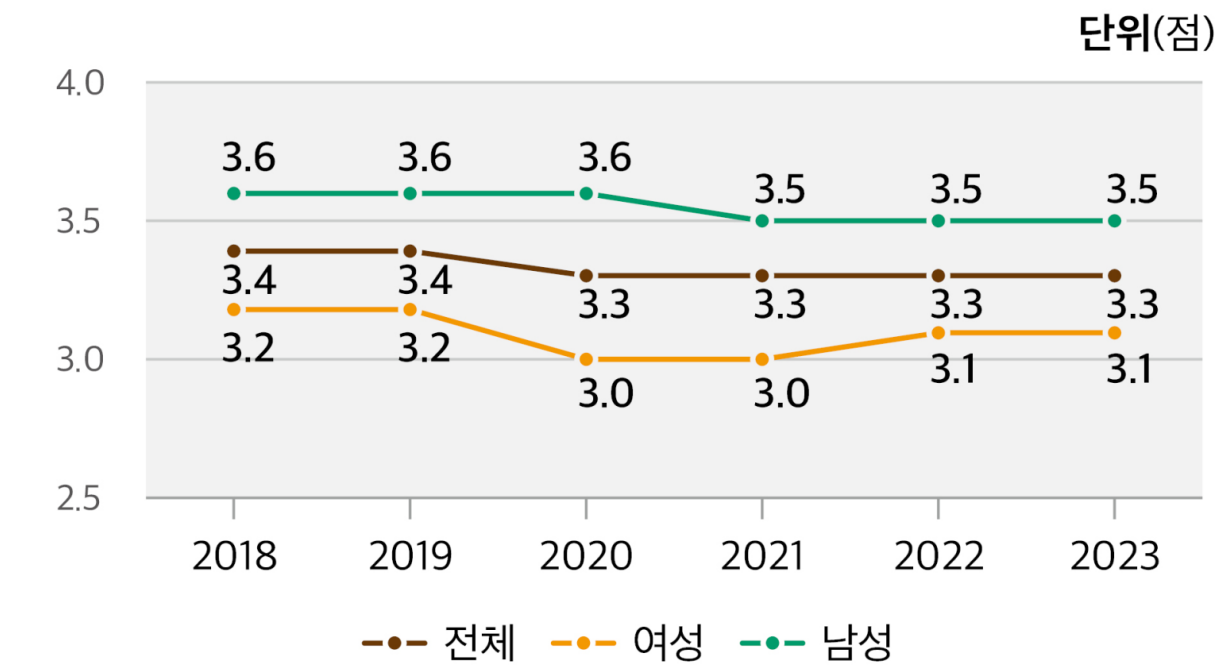


서울시 신혼부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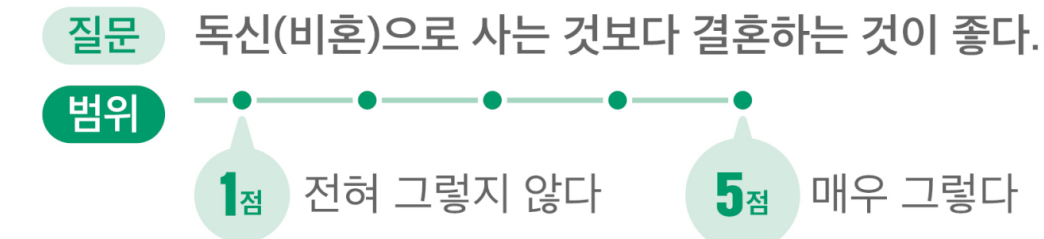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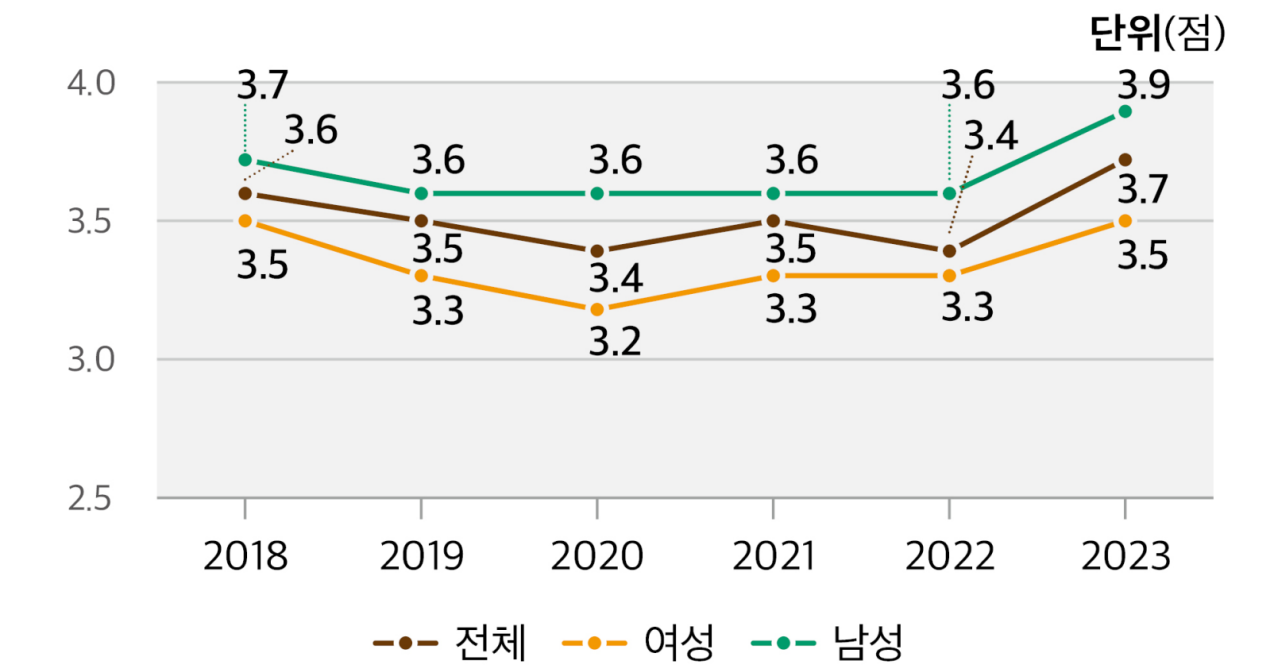
결혼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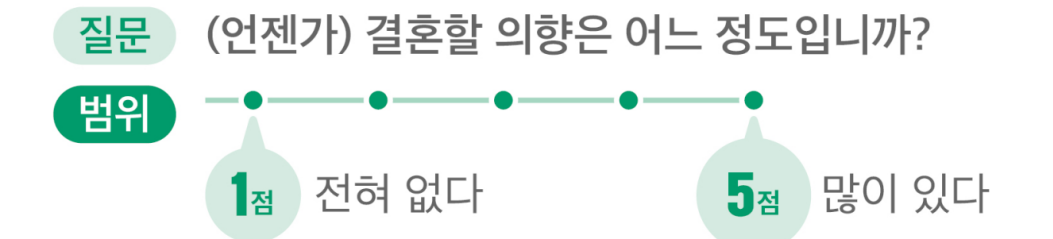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



결혼의향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2018년 266명, 2019년 510명, 2020년 664명, 2021년 607명, 2022년 603명, 2023년 555명)



20~30대 여성과 남성은, 어떤 경우에 결혼의향이 더 있을까?

여성

- ✓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 ✓ 긍정적 자녀관 점수가 높을수록
- ✓ 일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 ✓ 현재 교제하는 상대가 있는 경우
- ✓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 ✓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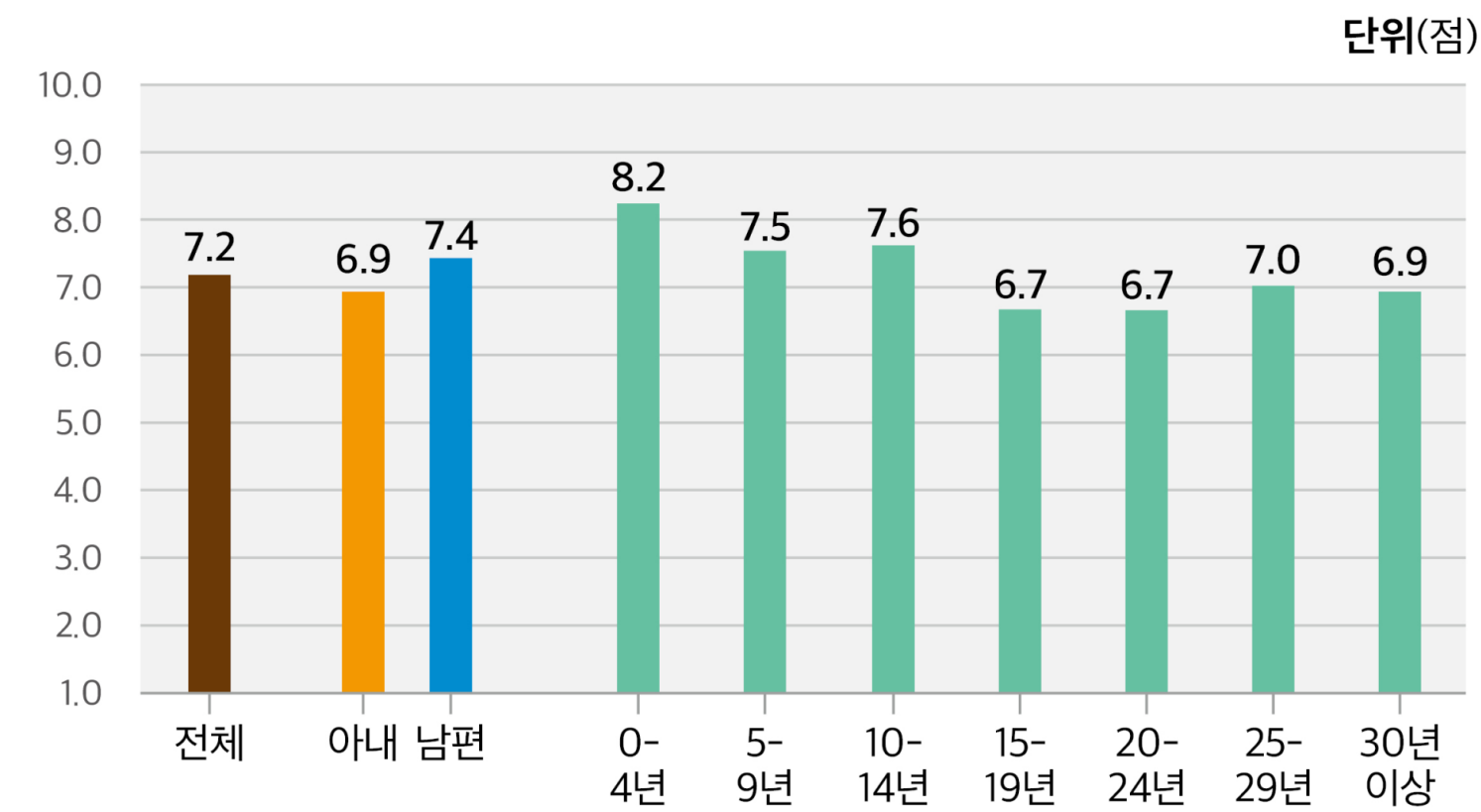
- ✓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 ✓ 긍정적 자녀관 점수가 높을수록
- ✓ 일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 ✓ 현재 교제하는 상대가 있는 경우

2. 부부의 현재

서울시민의 부부관계 행복감은 평균 7.2점입니다.

다른 집단보다 결혼한지 0~4년인 부부가 부부관계 행복감, 대화 충분성,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 공정성이 높고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이 낮습니다.

부부관계 행복감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아내 383명, 남편 384명; 결혼지속연수 0-4년 88명, 5-9년 78명, 10-14년 117명, 15-19년 84명, 20-24년 106명, 25-29년 102명, 30년 이상 192명)

질문 귀하와 배우자와의 관계는 최근 1개월 동안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부부관계 행복감

7.2점 / 10점

출처 서울가족서베이, 2023



부부의 대화 충분성

3.4점 /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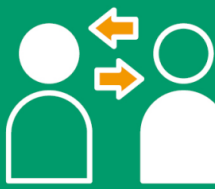
출처 서울가족서베이, 2023



부부의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

2.6점 / 5점

출처 서울가족서베이, 2023



부부의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 공정성

3.1점 /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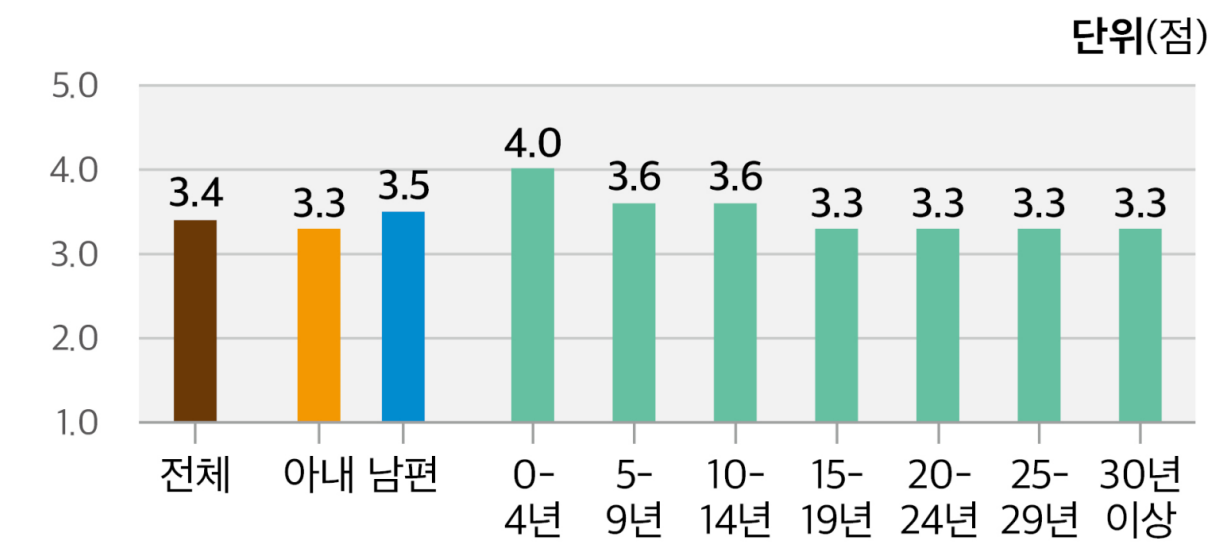
출처 서울가족서베이, 2023



어떤 경우에 부부관계 행복감이 높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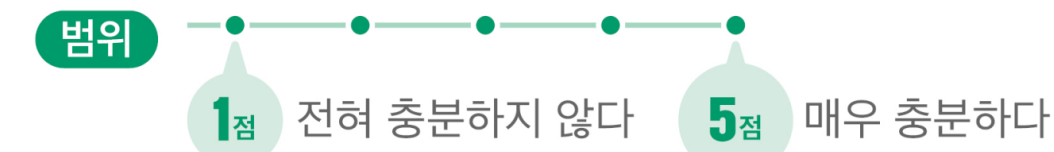
- 남성인 경우
- 배우자와의 관계가 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 부부간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이 낮을수록
-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 배우자와의 비대면 상호작용(전화, 문자, 메신저 등) 빈도가 높을수록

부부의 대화 충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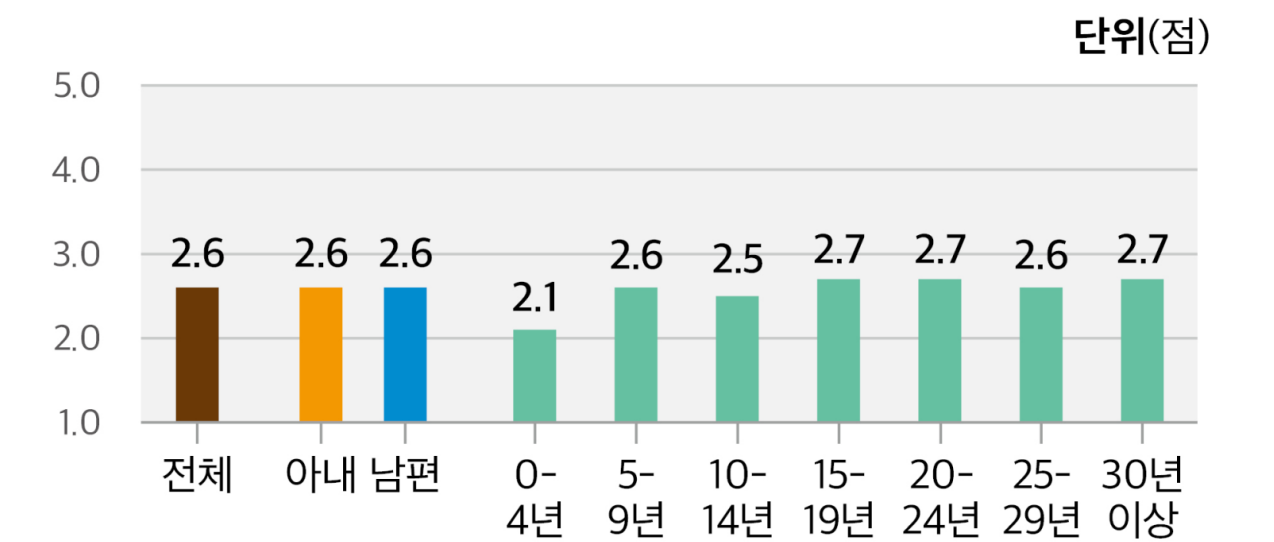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기혼자 아내 383명, 남편 384명; 결혼지속연수 0-4년 88명, 5-9년 78명, 10-14년 117명, 15-19년 84명, 20-24년 106명, 25-29년 102명, 30년 이상 192명)

질문 귀하는 평소 배우자와의 대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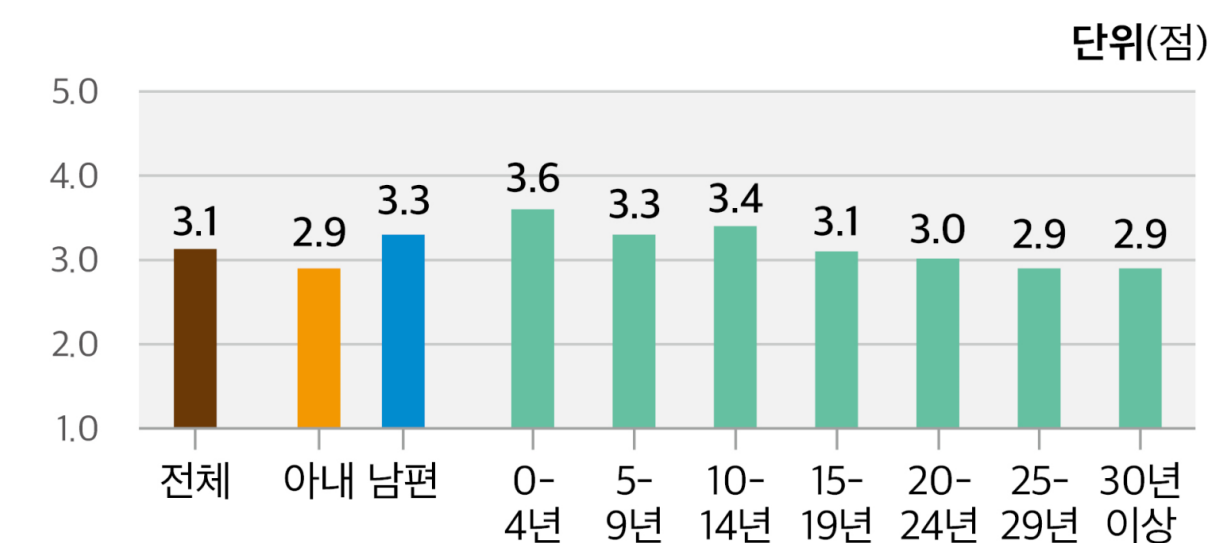
부부의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



질문 부정적 상호작용 5개 질문에 대한 평균



부부의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 공정성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기혼자 아내 383명, 남편 384명; 결혼지속연수 0-4년 88명, 5-9년 78명, 10-14년 117명, 15-19년 84명, 20-24년 106명, 25-29년 102명, 30년 이상 192명)

질문 귀하와 배우자의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은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부모의 탄생

서울시 부부+비혼(미혼) 자녀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40대 서울시민의 부모됨 의향에 대한 응답으로 '없다'는 감소하고 '매우있다'는 증가했습니다.
서울가족서베이에 참여한 응답자 70.6%는 이상적인 자녀수가 2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부부·비혼(미혼) 자녀 가구

25.0%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부모됨 의향

47.5%

출처 서울가족서베이, 2023

'매우있다', '대체로 있다' 응답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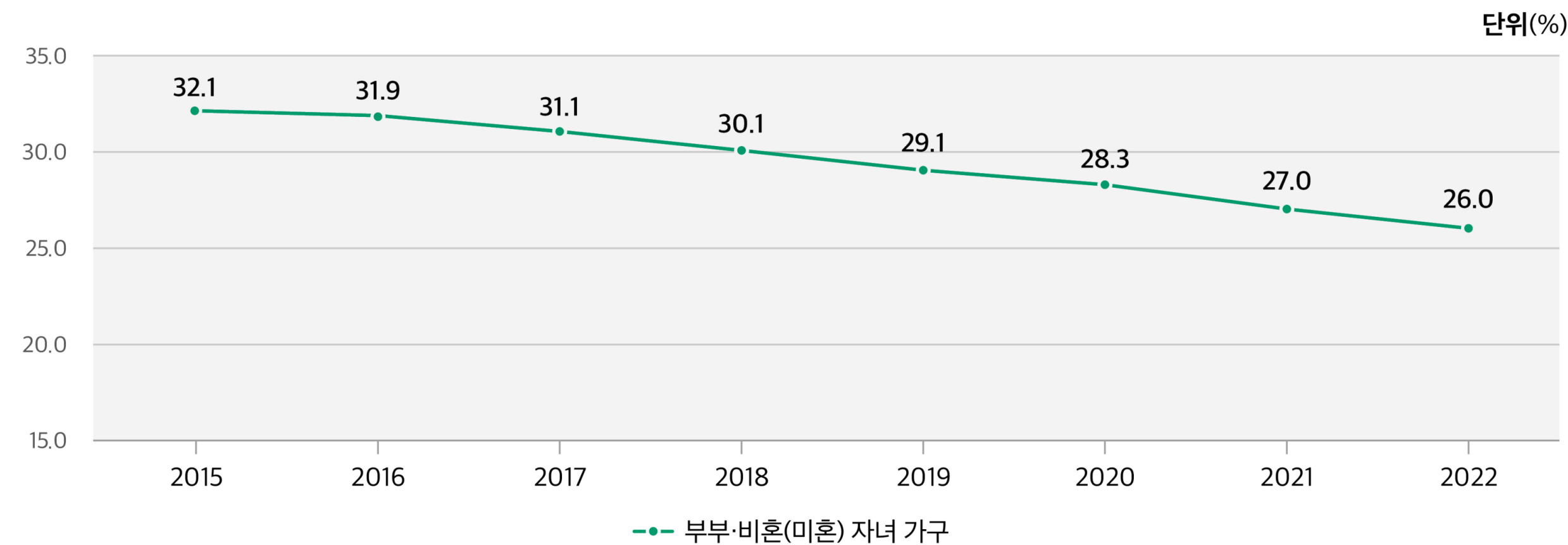
추가출산 의향

1.9점 / 5점

출처 서울가족서베이,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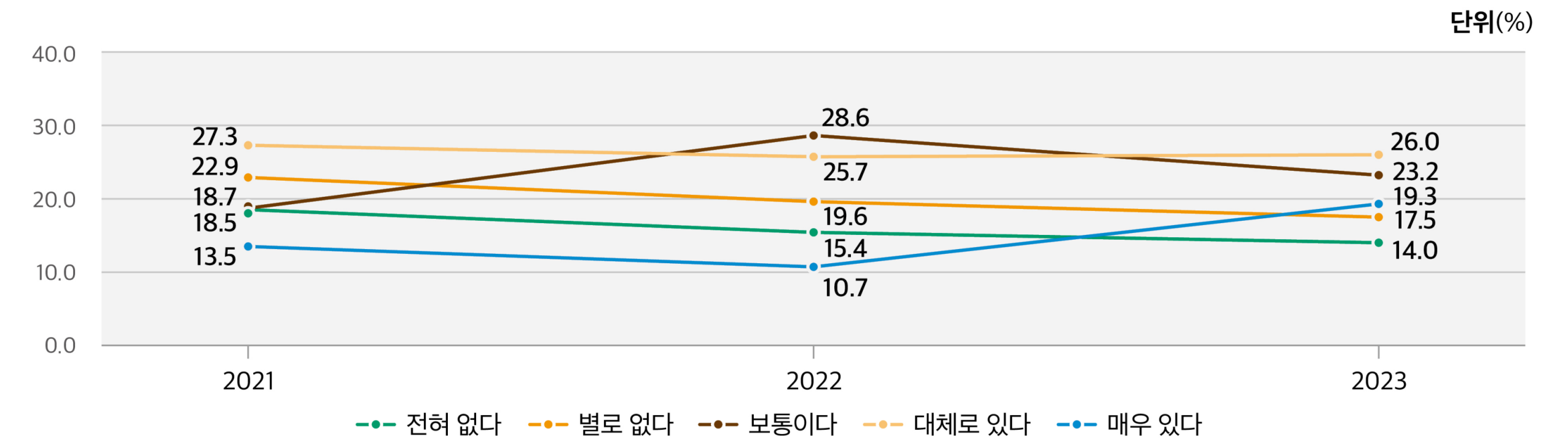


서울시 부부·비혼(미혼) 자녀 가구 비율 변화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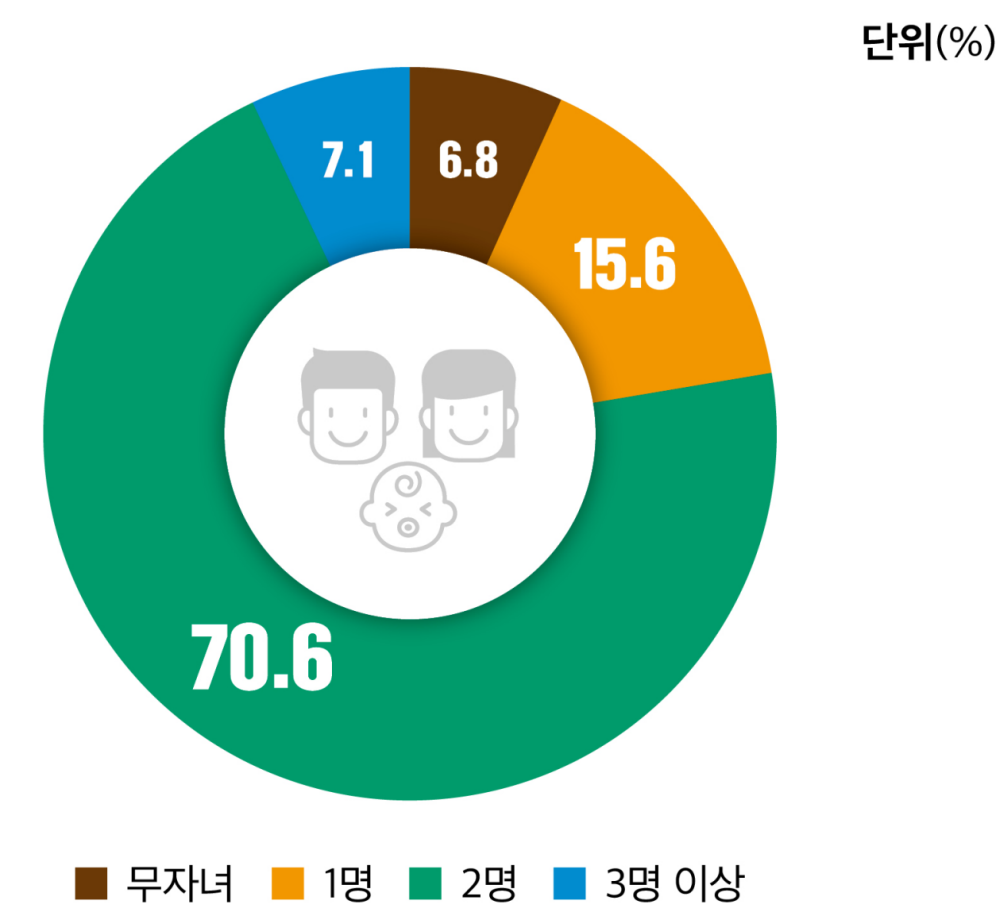
부모됨 의향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40대 응답자 2021년 728명, 2022년 723명, 2023년 68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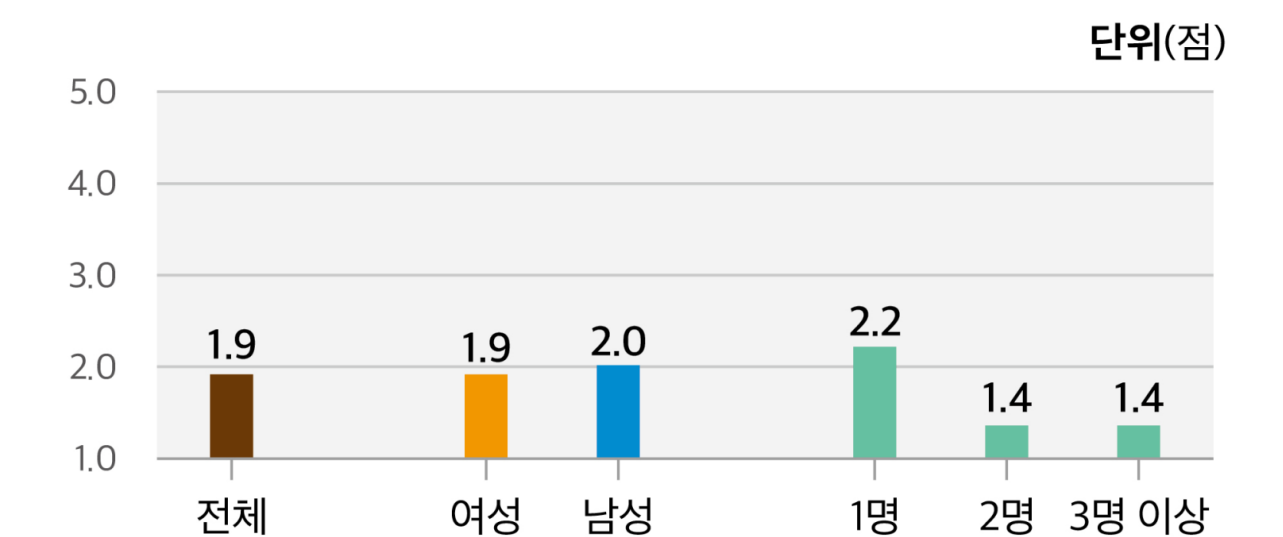


이상적인 자녀 수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추가출산 의향



자료 [2023 서울가족서베이 &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중 현재 기혼이면서 자녀가 있는 20~40대 응답자 1,047명

질문 귀하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자녀를 더 가질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4. 탄생-부모의 현재

만 0~9세 첫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나는 부모로서 행복하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 평균 4.1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아버지의 동의수준이 엄마보다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양육스트레스는 엄마가 아빠보다, 자녀가 유아기 일수록 더 경험합니다.

부모로서의 행복지수

4.1점 / 5점

출처 서울양육자서베이, 2023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2.8점 / 5점

출처 서울양육자서베이,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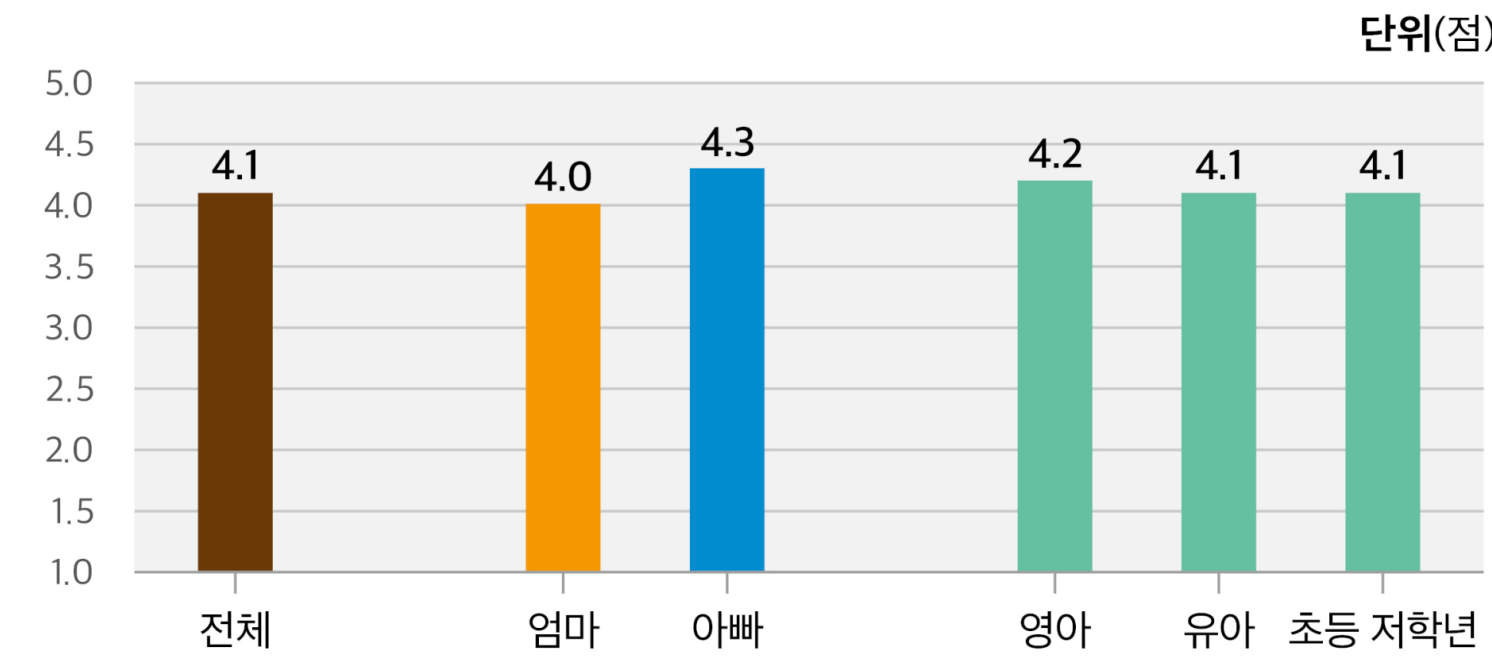
자녀 양육 중 가장 어려운 영역 '학습'

57.0%

출처 서울양육자서베이, 2023



부모로서의 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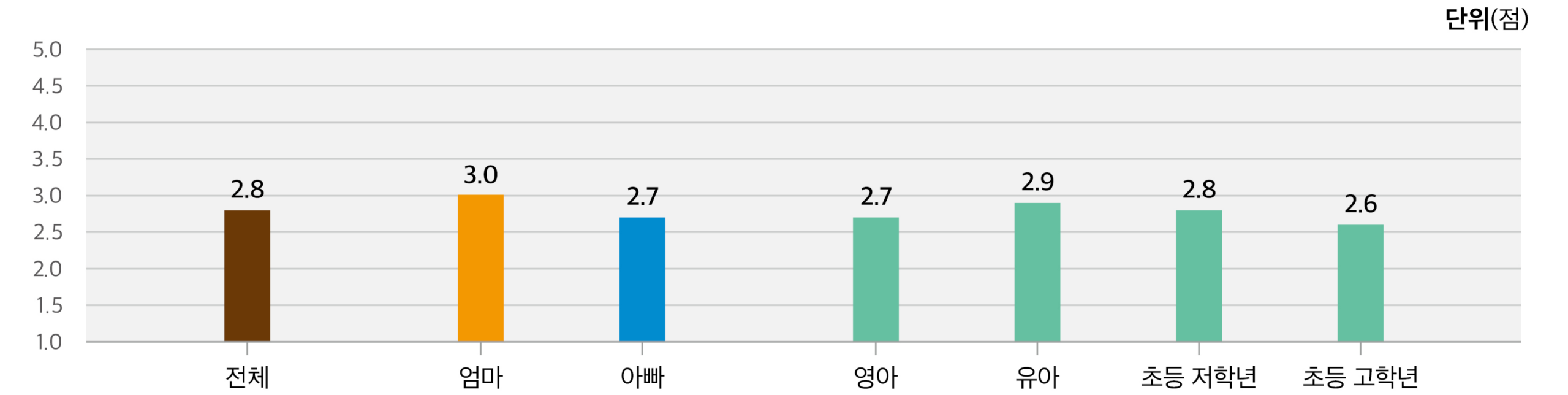
자료 2023 서울양육자 표본 92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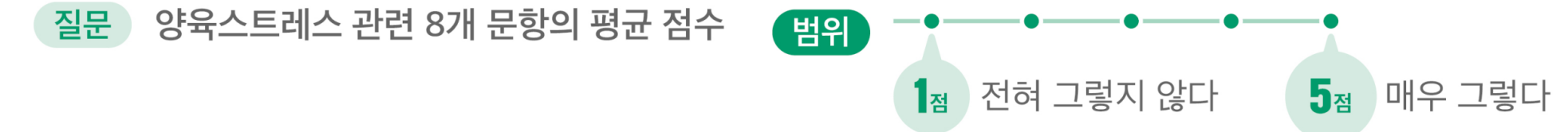
누가 부모라서 행복할까?

- ✓ 아빠인 경우
- ✓ 성역할 태도가 덜 전통적일수록
- ✓ 부정적 자녀관 점수가 낮을수록
- ✓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 ✓ 배우자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 ✓ 가사 및 돌봄 부담이 공평하다고 인식할수록
- ✓ 동네만족도가 높을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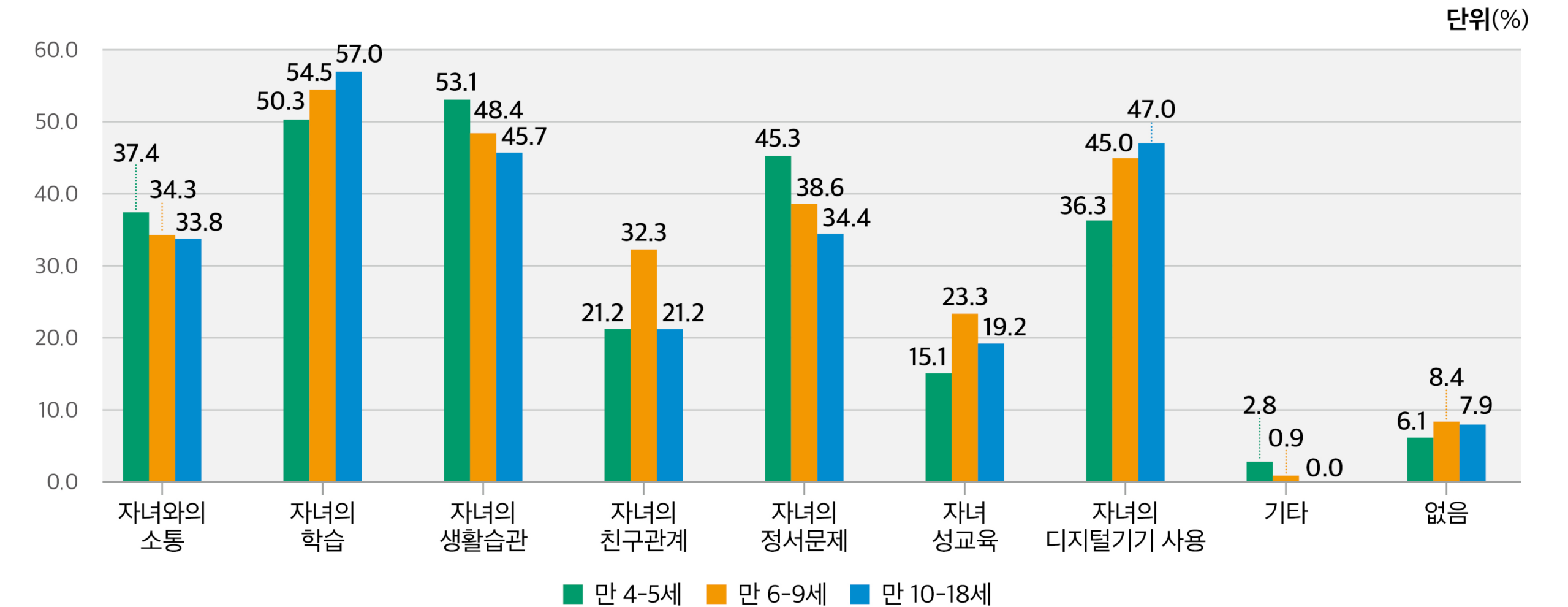
양육스트레스



자료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 2023 서울가족서베이(영아 284명, 유아 346명, 초등학교 저학년 293명, 초등학교 고학년 60명)



자녀 관련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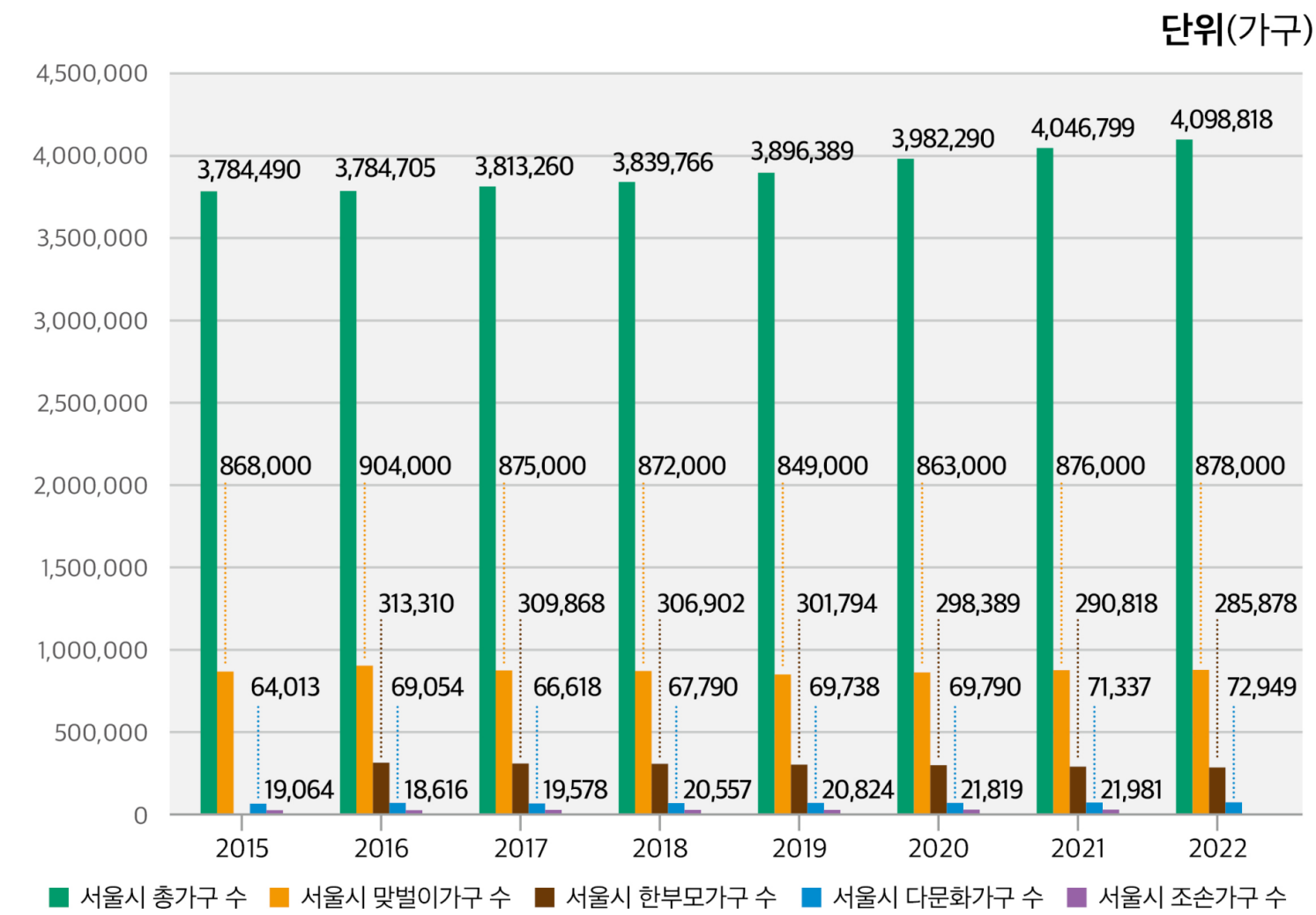
자료 2023 서울양육자서베이 & 2023 서울가족서베이(첫째 자녀 만 4-5세 179명, 만 6-9세 347명, 만 10-18세 151명)

5. 다양한 서울가족의 모습

서울시의 전체 가구 수는 2021년과 비교해 2022년 1.3%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 유배우자 가구의 41.2%가 맞벌이 가구이며, 서울시 총 가구수 중 한부모가구 수는 6.7%, 다문화가구 수는 1.7%, 조손가구는 0.5%에 해당됩니다.

서울시 가구 특성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서울시 가구 수

4,098,818가구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서울시 맞벌이가구 수

878,000가구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2



서울시 한부모가구 수

285,878가구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서울시 비혈연가구 수

99,555가구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



서울시 다문화가구 수

72,949가구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서울시 조손가구 수

21,891명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